



유성열
(삼양사 축산시험장장)

이번 호에서는 양돈장의 주인이 생각하고, 하는 일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양돈장의 주인은 경영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익이 많고 적음은 결과다. 결과를 만들어 내는 현장의 작업 방법은 종업원의 책임이라는 생각은 바꾸어야 한다. 교육 확인 동기부여, 머리를 맞대고 하는 진지한 의논에 의해서 작업 수준이 높아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종업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게 일을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일을 대할 때 보람을 느끼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뒷받침을 주인이 해야 한다.

1.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① 자기진단 능력의 배양

내 양돈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전, 사후의 평가 능력이 있어야 주인의 자격이 있다. 평가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작업과정과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이고, 둘째는 결과의 경제

성에 대한 평가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때 주인의 자격이 있다.

돼지값이 좋았던 이제까지는 적당히 일을 해도 괜찮았다. 또 웬만한 허점은 알면서 넘어가도 수익성이 문제될 정도로 돼지값이 낮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 축산업의 수익성은 낮아지거나 불투명해지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수익성이 낮을 때 경쟁력 있는 생산원가를 실현하려면 주인의 역할과 의지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익이 많이 날때는 원만하게 좋게잘게 일을 해도 된다. 이익이 박하고 잘못하면 적자가 되거나 이익이 나도 전체로 봐서 매력이 없다는 결론이 날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런 때일수록 구석구석을 살피고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양돈전문가의 실력과 양돈장 관리를 잘하는 주인의 의지와 슬기가 필요해진다.

자기진단 능력이 약하면 좀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처지는 부문을 찾지 못하게 되고, 주인이 갈팡질팡하고 시간만 보내면 양돈장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종돈을 구입하지 않고 2년 이상을 보내면 전업규모 이하의 양돈장은 근친 번식이 일어나게 되어 3년 후부터는 비육돈의 성적이 낮은 개체가 많이 나타난다.

“내 양돈장은 모든 점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잘 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만하면 안된다. 외국의 양돈업은 새 기술, 새 시설 더 좋은 종돈으로 뽐박질을 하고 있다. 국내 양돈장도 규모가 커지고 날로 성적도 좋아지고 공해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남들은 발전하는데 내가 제자리를 벗어나서 앞으로 나가지 않음은 곧 퇴보와 뒤처짐을 의미한다.

② 양돈장의 기록과 관리

모든 작업이 적어지는 돈사 일보, 사육의 결과가 돈으로 기록되는 경리장부, 지역사회 양돈 관계 등의 모임 행사에 관한 기록이 있으면 좋다.

일어난 일의 기록, 작업 결과의 양적·질적인 집계, 계획과 실적의 분석, 기록도 중요하고 다음 일을 계획할때 근거가 된다.

특히 돼지 키우는데 들어간 돈이 적힌 경리장부는 잘 관리되어야 한다. 또 이런 기록들은 현장 종업원이 월별로 집계를 내면, 주인은 그중에서 필요한 내용만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양식을 마련해야 편리하다. 주인이 필요로 하는 내용은 양돈장마다 다르다. 또 양돈장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③ 양돈 자료와 관리

양돈장의 모든 기록은 집계가 끝나면 그때부터 자료가 된다. 시설, 환경, 질병, 생산성, 영양 등 기술적인 관계자료는 엄청나게 많다.

사료생산량, 축종별 사육두수 변화, 축종별 판매가격 변화 등은 수익성을 예상하는데 꼭 필요하다. 또 이런 자료는 모아서 분류하고 종업원 교육에 쓰면 좋다.

2.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

① 종업원 뒷바라지

양돈장의 성적은 종업원의 작업결과다. 종업원의 작업에 임하는 자세는 주인에 달려있다.

“돼지 키우는 농장”보다는 “돼지 키우는 사람이 사는 농장”이라고 생각하자. 왜 축산현장에 취업을 기피하는가? 기피하는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는가? 아니면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은 했는가? 당신은 종업원이 없이 양돈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유럽에서는 종업원을 “HELPER(도와주는 사람)”라고 부른다.

개인 작업 결과가 질과 양으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강한 교육을 통해 다듬어 준다.

작업의 목표를 양과 질로 정확히 나타나도록 해서 책임감 있는 근무를 하도록 한다. 또 그 결과에 맞는 대우가 따르도록 조치한다.

② 양질의 판매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판매대금은 빨리 받는가? 어디서 지육률이 높게 나오는가? 어느 곳에 판매할 때 안전하게 판매를 하는가? 차상계류를 하면 계절별로 하루에 얼마나 감량이 나는가? 차상계류할때 하루에 나가는 운전기사와 자동차에 주는 돈은 얼마가도 계산해 본다.

판매 경비는 얼마나 드는가? 내 양돈장만 출하하는 것보다 여럿이 묶어서 출하하면 어떤 점을 알아야 되는가?



③ 생산성 향상

· 질병 : 앞으로 생산원가의 차이와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퇴치가 안되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 사료관리 : 돼지의 사료요구율은 무엇인가? 사료회사에서 시작해서 돼지가 판매될 때까지 작게 나누어서 생각한다. 돈을 준 사료를 돼지가 얼마나 많이 먹는가 생각해 본다.

· 번식성적의 향상 : 비육돈 생산원가에서 이 유자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아십니까? 복당 이유두수가 차이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시오. ♂의 1회 교미원가가 얼마나 아십니까? 우의 임신이 재발로 한주기 늦어질 때 돈이 얼마나 손해나는지 계산해 보시오.

· 육성비육돈 : 얼마나 사료를 흘립니까? 그 비율은 먹는 양의 몇 %나 됩니까? 한 돈방의 돼지는 고르게 컸습니까? 출하하고 돈방에 몇마리씩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④ 지출경비의 절감

개인 양돈장은 의외로 돼지사육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 특히 사장이 쓰는 사장경비는 사장의 현장 체재시간과 관계가 크다. 밖에 오래 있는 사장일수록 사장경비가 많고 농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장은 돈도 적게 쓴다. 또 생산성도 다르다.

다른 지출 경비도 확인해 보자.

⑤ 효율적인 농장관리

주위의 뜻이 맞는 분들과 자주 모여서 농장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자. 소, 돼지, 닭 등 각 축종이 다 모이면 더욱 효과적이다. 현재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는지? 큰 것만 찾지 말고 작은 것부터 빨리 실시하자.

3. 현재의 파악과 변화의 예측

이 일은 주인에게 맡겨진 가장 큰 일이다. 현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수를 매기자.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비하는 방법을 찾자.

소비자가 요구하는 돈육은 어떤 것인가? 그런 돼지고기는 어떤 종돈을 키워야 하는가? 어떤 형태로 사료를 먹여야 하는가? 공해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할 일은 태산같이 많다.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이다. 종업원의 할 일은 적을 수 있고 다 아는 일이다. 주인의 일은 밑도 끝도 없어서 당신의 생각에 따라 일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